

질문 표절과 반(反)미래

글 : 박성원 (s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자가 되기 전 언론사에서 10년 기자로 지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글 쓰는 법보다는 질문하는 법에 더 관심을 가졌다.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 사안을 꿰뚫는 질문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싱싱한 재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태도 때문인지 하와이대학에서 미래학을 공부할 때도 미래연구는 좋은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생각을 자주했다. 실제 하와이대학에서 미래학을 가르친 짐 데이터(Dator) 교수도 하나의 질문을 주문처럼 늘 입에 달고 다니셨다: “What is next? 그 다음은 뭐지?” 이 간단한 질문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마력이 있다. 자신의 지적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며, 낯선 미래로 인도하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자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로봇이 점차 인간을 닮아간다. 그럼 그 다음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줄 아는 로봇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로봇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은?

로봇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도 이 사회에서 하나의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권,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 다음은?

인간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은?

인간은 점차 로봇을 닮아간다. 그 다음은?

인간과 로봇을 구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질문에 혼자 답하기는 힘들다. 주위 사람, 전문가, 인터넷 정보 등을 찾아서 물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지적 한계를 넘는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보면 지금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미래의 현상을 마주한다. 그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새로운 단어에는 미래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

미래연구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하는 것을 즐겨야 하고 좋은 질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한다. 미래연구에서 좋은 질문이란 “현재를 떠나 현재를 보는” 질문이다.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안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간과하거나 무시한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현재를 떠나” 미래의 시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를 현재대로 보자면 미래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

질문 수준 향상 연구의 필요

우리사회에서 미래적 시각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자면 먼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질문하지 않는 사회로 단정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주입식 교육, 획일화된 사회, 웃어른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유교 문화 전통,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취질까 스스로 질문을 삼가는 태도 등을 꼽을 수 있다.¹⁾ 사회가 다양해지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

어나 과거처럼 지식 자체를 가르쳐 주기보다 질문을 통해 사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적다.²⁾ 당신은 학창시절에 질문하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 ‘질문수준 향상연구’란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해보면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논문들을 찾을 수 있다. 홍경선, 김동익(2011)은 질문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게 하고 그 공백을 깨닫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공백을 찾는 일, 그게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미래연구의 핵심이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공백을 찾아내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 그 간극을 채울 전략과 정책을 고안해 내는 것. 몇 편의 논문은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수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박홍문, 김원경(2008)은 학생 질문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질문의 수준을 높여가도록 도왔다. 예컨대 “X는 왜 그러한가?”라는 단순 질문에서 “X와 Y는 어떤 점이 다르고 유사한가?”라는 좀 더 복잡한 질문으로, “X를 얻기 위해 Y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X가 Y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해결방법까지 고려한 질문까지 올라가는 것이다.³⁾ 이광성(2001)은 저급 질문과 고급 질문으로 질문의 수준을 나누는데 각각의 특징은 이렇다. 저급 질문은 지식이나 이해와 관련된 질문이다. 정의하거나 요약하는 질문이다. 반면 고급질문은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자면 전이,

귀납, 확산, 일반화, 구별, 추리 등의 고급 사고력이 필요하다. 정영란, 배재희(2002)는 학생들에게 질문 강화 수업을 시켰더니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⁴⁾

질문 표절과 반미래

우리사회 구성원이 질문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위 논문들은 질문 강화 수업을 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고급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음을 주장한다.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 누구라도 질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질문하지 않는 원인에는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추가하자면 질문의 해외 수입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통해 질문을 발굴하지 않고 이른바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이유를 든다. 쉽게 말하면 연구질문 표절이다. 소설이나 가요에만 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의 질문을 베끼면 그것도 질문 표절이다. 외국에서 제기된 질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 제기한 질문에는 그것이 질문이 되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고민이 깊으니 멋진 질문으로 제기된 것이고, 그것이 멋져 보이니 그걸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소설 표절이나 가사 표절과 다를 바가 없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 남의 질문으로는 남의 미래만 마주할 뿐이다. 질문 표절을 반(反)미래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 홍경선, 김동익. (2011). 공학교육에서 학생 생성 질문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수업 사례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6), 24-30.

2) 이광성. (2001). 고급사고력 성취에 있어서 고급수준 질문의 활용정도와 학업능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1), 1-16.

3) 박홍문, 김원경. (2008). 학생 질문 강화 수업의 효과 분석.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4(2), 252-271.

4) 정영란, 배재희. (2002). 질문 강화 수업이 중학생들의 질문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4), 872-881.